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공항·항만·철도 '속도전'

4월 초 조선소 인수 실사 본격 착수... 'K-스마트조선' 전진기지 육성 공식화 인프라 구축 속도가 투자유치·수주 경쟁력 좌우... 협의 가속화 등 완료 총력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항·항만·철도 등 핵심 SOC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이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HI 중공업 최대주인 예코프라이머인 퍼시픽은 지난날 HD현대중공업과의 합의각서(MDA) 체결에 이어 지난달 초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했다.

올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중심의 신조 생산기지로 전환해 2028년 첫 완성선 인도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부산 영도조선소는 친환경 선박·특수선·해군 함정을 담당하고, 군산조선소는 별도 법인으로 대형 선박 건조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지난달 "군산조선소를 AI·친환경·MRO 생태계가 융합된 스마트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며, K-스마트조선 전진기지 육성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글로벌 선주와 기술진의 신속한 접근을 보장하고, 신조선 건조를 위한 대형 자재의 원활한 수송을 뒷받침할 인

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항 분야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완공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글로벌 선주들은 신조 계약 전 조선소 현장 실사를 위해 인천공항 입국 후 장거리 육로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해외 선주와 기술진의 현장 접근 시간이 단축되고, 선박 건조 기간 중 상주하는 선주 측 감독관의 본국 왕래도 수월해진다.

미 해군 합정 MRO 사업처럼 가동 중단 시간 최소화가 핵심인 상황에서는 긴급 부품과 전문 인력의 신속 투입을 위한 항공 접근성이 수주 경쟁력과 직결된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 과정에서 수도권·해외 연구 기관과의 상시적 기술 교류가 필수적인 만큼, 항공 노선 확충은 우수 연구 인력 유치를 위한 결정적 조건으로도 작용한다.

항만 분야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완전 가동을 뒷받침할 기반 시설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금강 하구 인근 해역 항로에는 금강을 따라 내려온 퇴적물이 지속적

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대형 및 대형 선박의 건조와 인도, 대형 자재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심이 갖춰져야 하며, 준설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예산 투입 확대와 제2부기장 조기 완공이 요구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조선산업 전반의 스마트 전환 가속화 및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중점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속철도망을 통해 서울·경기권에 거주하고 있는 국내의 연구 인력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입철도망을 통해 전주·익산 등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한 장거리 통근 부담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이 가시화된 만큼 SOC 인프라 구축을 국가 정책 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조선소 재가동 일정에 맞춰 인프라를 신속하게 갖추는 것이 글로벌 투자유치와 수주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1만호 기자·군산=김민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등 4명의 더불어민주당 전북 단체인 후보자들이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농민혁명정신 제도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정신, K-민주주의의 핵심 자산"

민주 전북 단체인 예비후보들, 미래 먹거리로 육성 선언 "전북 정체성으로 확립, 경제·문화적 가치로 확장시킬 것" 헌법 전문 수록 국민 운동 주도·글로벌 아카이브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기초 단체인 예비후보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세계화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조지훈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 등 4명의 예비후보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학정신을 'K-민주주의'의 핵심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예비후보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은 전북의 가장 숭고한 역사적 자산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이를 전북의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경제·문화적 가치로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습은 동학 농민군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인내천 사상은 오늘날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민주주의

가치와 정확히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후보들은 동학정신의 제도화와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우선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 운동을 전북이 주도하고, 전봉준·손화중 등 주요 인물에 대한 독립 유공자 서훈 추진과 국가적 예우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동학 관련 국가기념식을 전북 전체가 참여하는 공식 행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학 역사 문화권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 기록물을 활용한 '글로벌 동학 아카이브' 구축과 미래세대 체험관 건립 계획도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웹툰·영화·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과 함께 동학 유적지를 활용한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원택 "동학 민주주의의 주권"과 국제포럼 개최, '동학 평화·인권 국제상' 제정을 통해 글로벌 연대 기반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군산 김재준·익산 최정호·남원 양충모·진안 전춘성·무주 황인홍·장수 최훈식·임실 한득수·고창 심택섭 예비후보 등도

비록 여건상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뜻을 함께했다. 다만 정읍·김제·순창 지역은 현지 단체장의 선거법상 선거 운동 제한으로 참여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기자회견의 질의응답에서 이원택·조지훈 예비후보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은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합법 전문에 그 정신이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대사에 동학이 있었다면 현대사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다'며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했다. /O1만호 기자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 김관영, 무소속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오늘 도지사 출마 공식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6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등록을 기점으로 김 예비후보는 향후 공약 발표와 현장 행보 등 선거 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원칙 아래 선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전북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직후 입장을 통해 "전북의 선택은 도민이 한다"며 "도민이 먼저이고 전북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원칙 아래 선

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민생경제 회복,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미래산업 육성, 도내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언급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O1만호 기자



초록단풍명소

내장산

쏟아지는 햇살

깊은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초록빛 바람

좋은 이들과 즐기는

여름날의 내장산...



#내장산 우화정



#내장산 단풍터널

#내장산 우화정

